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

“성(性)은 밝고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원조교제, 학교에서 외상에서 아기를 낳는 이교생 등, 원문을 상정하는 청소년관련 사건들은 청소년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YMCY가 운영하는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센터의 설립을 꿈꿔오던 이명화 센터장은 "성(性)을 가르치고 있는 이명화 센터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마침 회의가 한창이다. 온돌방에 앉아 담소나누듯 하는 회의가 무척 인상적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킁킁인 듯한 어린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며 직원들에게 농담을 건넨다.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물씬 드러내는 곳이 바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다.

성교육이 가장 절실한 아이들은 센터밖에 존재

센터 한 쪽 벽을 장식하는 화이트보드에는 중·고등학교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섹슈얼리티 기행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명단이다.

'섹슈얼리티 프로그램'은 터부시된 성을 양지로 끌어내어 다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평일 10시, 2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3층에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성(性)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런 후 2층 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과 남성의 성기, 피임, 임신에 대해 배우고 비디오 자료로 우리 몸에 대한 체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센터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성을 진지하고 즐겁게 생각토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마침 2시경이라 한무리의 남녀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들을 보고 성교육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명화 센터장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표현이 서투려요. 성에 대해 또래끼리 낄낄거리길 좋아하지만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편인데 비해 여학생들은 질문이나 성에 대한 얘기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죠." 이곳은 질문이나 호기심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힐 법한 남자들이 오히려 조용하다니... 그외에도 성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지역상, 학교 특성상 편차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청소년 성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미혼모, 성매매와 관련된 아이들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이에요. 그 아이들 대부분 결혼가정 출신이에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정적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바로 성매매죠."

성교육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가정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학교선생님 혹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성교육이 절실한 가출청소년들은 센터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생각해진 것이 '찾아가는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 한강고수부지로 아이들을 찾아 거리로 나섰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아가



◀2층 체험관에 전시되어 있는 남녀성기모형



청소년들에게도 성은 알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올바른 성지식을 통해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성매매, 성폭력, 성과 관련된 질병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는 정성까지 보인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센터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보듬을 사람이 없다는 모성에 같은 생각에서란다.

성(性) 공론화 되었지만 성의식은 여전히 과거 답습

과거에 비해 영화나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배우고,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터라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과거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진척됐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이명화 센터장의 말은 이런 어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뒤흔든다.

“과거는 성을 숭고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묘사하여, 지나치게 미화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죠. 이에 비해 요즘 청소년들은 상업적인 성을 많이 접하고 교육적인 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접한 탓에 성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행동 후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피임이나 성접촉에서 오는 질병에 대해 거의 무지하죠. 과거세대와 다를 바 없어요.”

국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약 20%, 여학생은 약 10% 정도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지식은 과거 세대와 비슷한 수준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데이트강간으로 상담을 한 가해남학생은 피해 학생의 거부반응을 오히려 좋아하는

행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순결을 강조하는 성문화에서 벗어나 밝고 아름다운 성문화 조명 필요

“성은 터부시할 대상, 순결해야만 하는 대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성은 배워야 하고 즐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죠.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배운대로 자신의 몸이 순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로 쉽게 성매매와 같은 유혹에 빠져들고요.”

이 센터장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고자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을 주장한 적도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알권리, 보호권리를 내세우며 성을 즐기고 가꾸도록 권장하였다. 그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여 바람직한 성문화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터부시되던 성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성교육의 현주소는 아직까지 과거 세대와 달라진 게 별반 없어 보인다. 성은 지나치게 무거운 존재로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존재도 아닌 그 사용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상업적 성을 벗어나 즐기고, 아름다운 성으로 인식하는 세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 태아모형



김언영 레드러본 기자